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 개최”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30.(화)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엇(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회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30.(화)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 1.5 track 행사 참여 기업

- 청정에너지 공급망 : △(우리측) 한국중부발전, 체리엇 에너지(한화), 고려아연, △(미측) GM, SLB
- 청정 수소 : △(우리측) 한국 가스공사, SK 가스, 롯데 케미컬, △(미측) Chevron New Energies, GTI Energy, Exxon Mobil Low Carbon Solution
- 해상풍력 : △(우리측) 포스코 인터네셔널 △(미측) Principle Power, NOV, Equinor, CEBA, Oceaneering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 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 상기 행사 사진. 끝.

담당 부서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에너지과학외교과	책임자	과장	박세아 (02-2100-8192)
		담당자	서기관	고경남 (02-2100-8193)